

국어

문 1.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 ③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답) 3(일단 ‘-대’와 ‘-데’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고 해’의 줄임, 남의 말을 들음, 인용

데- ‘더라’의 줄임, 직접 경험한 일

아제 보기자를 맞게 고치면 다음과 같아요.

- ① 내일 야유회 간대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데.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데요.

문 2.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
-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 ③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

답) 3 (용언 다음의 ‘대로’는 띄어 씁니다. 틀린 보기자를 맞게 고쳐 볼게요.

-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이야.
-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
-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 궁금해.

참고로 사전의 ‘도외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외 [度外] [명사] 어떤 한도나 범위의 밖.

도외시[度外視]

① 안중(眼中)에 두지 아니하고 무시(無視)함

② 문제(問題) 삼지 않음

③ 불문(不問)에 부침

예문)

그의 잘못은 도외로 치고 이야기하자.

그의 견해를 도외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문 3.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 ③ 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 ④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답) 2('에게'는 '~를 향하여'의 뜻이랍니다. ②의 문맥은 '~에 해당하여'의 뜻이랍니다.)

문 4.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 ① 격물致知(格物致知)
-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답) 2('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밑줄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① 격물致知(格物致知) - 인간 수양 단계의 시작, 대학의 8덕목에서 '수신제가치 국평천하'의 전제 조건으로 '사물에 다가가고 이치를 밝힌다'는 뜻이랍니다.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 본래의 것과 끝의 것이 뒤집어짐을 뜻하는 말로 주객전

도, 객반위주 등과 같은 뜻이랍니다.

-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 이름만 나고 실속은 없다는 뜻입니다.
-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 문득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뒤에는 반드시 점진적 수행 단계가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랍니다.

문 5.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 ㄴ.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 | | |
|-----------------|-----------------|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ㄱ - ㄹ - ㄷ |
| ③ ㄷ - ㄹ - ㄱ - ㄴ | ④ ㄹ - ㄷ - ㄴ - ㄱ |

답) 3(인간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를 적응해 옴 - 밤 시간을 이용하려는 욕구로 밤 활동이 많아짐 - 덕분에 문명이 발달함 - 인간과 생물들이 리듬을 잃음)

문 6.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 ②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③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 ④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답) 3(리더십은 ‘어떤 일을 앞에서 이끄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①은 의견이 분분하면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②는 용기 있는 결단과 도전으로 성공한 경우고, ④는 등산하는 사람들의 경쟁심을 유발해야하는 길잡이의 역할

을 말하고 있답니다.)

문 7.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물놀이는 사물(四物), 즉 팽과리, 징, 장구, 북의 네 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와는 좀 다르다. 풍물놀이를 무대 공연에 맞게 변형한 것이 사물놀이인데, 풍물놀이가 대체로 자기 지역의 가락만을 연주하는 데 비해 사물놀이는 거의 전 지역의 가락을 모아 재구성해서 연주한다.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쟁쟁거리는 팽과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잣게 몰아가는 장구를 비에, 둉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 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 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

- ① 사물놀이의 가치
- ② 사물놀이의 소리
- ③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 ④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

답) 1 각 보기마다 힌트가 되는 부분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아요.

- ② 사물놀이의 소리 -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쟁쟁거리는 팽과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잣게 몰아가는 장구를 비에, 둉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 ③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 사물놀이는 사물(四物), 즉 팽과리, 징, 장구, 북의 네 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 ④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 -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

문 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담화에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때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한다.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아, 덥다.’라는 발화가 ‘창문을 열어라.’라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는 창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 ①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 ② 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 ③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 ④ 요청할 때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답) 3 각 보기마다 힌트가 되는 부분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아요.

- ①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 ② 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 ④ 요청할 때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문 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탄다. 노둔하고 여윈 말을 얻게 되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하고 조심조심 금방 넘어질 듯 염려해서 개울이나 구렁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할 일이 적었다.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여 날래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면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고삐를 늦추어 달리니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여 매우 장쾌 하지만 말에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의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어떻겠는가?

– 이곡, ‘차마설(借馬說)’ –

- ① 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 ② 우의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③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답) 3 (말을 빌려 탄 경험으로 소유의 깨달음을 느낀 바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겪었던 실제 사연을 교훈을 주고자 설득하는 글이 ‘설’이랍니다. 참고로 ‘우의적’은 ‘우의적이란 ‘다른 사물에 빗대거나 비유적으로 풍자하는 경향이 있는’이란 뜻이랍니다.)

문 10.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①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 ③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 ④ 인생은 여행과 같다.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답) 4(전혀 관계없는 것을 관련짓는 유추랍니다.)

①은 삼단논법, ②는 대조와 예시, ③은 귀납법

문 11.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하나에 백 원씩 처주마.
-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처지네.
-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처대고 있지.
- ④ 오는 길에 처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답) 1(①은 ‘쳐 주마’로 해야 해요. 이 때 ‘쳐’는 ‘계산하다’는 뜻으로 보시고요)

문 12.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 ②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 ③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 ④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답) 4(보조용언은 홀로 설 수 없는 용언인데, ④는 ‘젊어’를 빼고도 말이 된답니다.
 그래서 본용언끼리 결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문 13.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세 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하였다.
- ②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 ③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겸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 ④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면 좀 더 긴밀한 구성이 될 것이다.

답) 2(대립어의 관계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②는 인과처럼 쓰였답니다.
 그래서 ‘옹호-비판’정도로 나와야 합니다.)

문 14.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버렸다.
- ②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시도하고 있다.
- ③ 그 친구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 ④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 마찬가지이다.

답) 4

- ① 좌우로 둘러 봄, 결정을 못 하고 망설임
- ② 어둠 속에서 찾음, 확실한 방법을 모르고 찾아 봄,
- ③ 작은 것을 부풀려 말함,
- ④ 나무에 올라 가 고기 구하기, 불가능한 일이란 뜻입니다.

문 1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동(三冬)에 ㉠ 베옷 입고 암혈(巖穴)에 ㉡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뉘도 쭈 적이 없건마는
㉢ 서산에 해 지다 하니 ㉣ 눈물겨워 하노라.

- ① ㉠ :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 ② ㉡ :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 ③ ㉢ :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 ④ ㉣ :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답) 2 일단 현대어로 풀어 볼게요.

추운 겨울에 베옷 입고 바위 구멍에서 눈비 맞아 (=힘든 생활을 하며 살아)
구름에 가린 햇살조차도 쭈 적이 없건마는 (=벼슬 한 번 한 적이 없지만),
임금께서 돌아가셨다니 눈물 겨워 하노라
그래서 ‘눈비’도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하게 하는 구절로 봐야 합니다.

문 16.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살구’, ‘잠’, ‘새파랗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파랗-’에 ‘개-’, ‘-ㅁ’,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 ② 면도칼, 서릿발, 천둥이, 장난기
- ③ 깍두기, 선생님, 작은형, 핫바지
- ④ 김치찌개, 돌다리, 시나브로, 암탉

답) 1(합성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②천둥이, ③깍두기, 선생님, 핫바지, 는 파생어 ④ 시나브로는 단일어입니다)

문 17.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①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
- ②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③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

답) 1('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에서 '인문학의 역할'이라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 1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위 : %, 중복 응답)

인터넷의 순기능	88. 4	59. 0	46. 6	13. 1	12. 9
	다양한 정보의 습득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교육 및 여가 활용	다양한 의견의 장	다양한 동호회 참여 및 활동
인터넷의 역기능	84. 3	83. 9	56. 2	16. 1	10. 2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성인 음란물 유통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반국가 행위

- ①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한다.
- 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답) 4(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보여주는 것이지, 인터넷 사용금지와는 관련이 없답니다.)

문 19.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용악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눈이 오는가 ①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④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③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 ① ㉠은 자신이 떠나온 공간인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 ② ㉡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군.
- ③ ㉢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 ④ ㉣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겠군.

답) 4(고향이 그리워 밤에도 잠을 못 이루는 ‘간절함’을 뜻하는 부분이랍니다.)

문 20.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 : 액자’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2000년이 된 기념으로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 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은데 병 속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 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꾸기 위해.

- ① 유명 인사들의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은 그 요인으로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듣다. – ‘성공 : 습관’
- ②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 본다. 책의 무거움,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책 : 장난감 블록’
- ③ 로댕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댕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 – ‘돌 : 손’
- ④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 ‘내면 : 옷차림’

답) 4(‘그림:액자’=‘내면:외면’이 가장 적절합니다.)

- ①성공:습관은 인과관계,
- ②책:장난감 블록은 유사성에 의한 비교
- ③돌:손은 대상과 창조성으로 봐야 합니다.

2015년 국가직 국어 문제의 분야별 출제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문법 분야 - 6

어휘 분야 - 2

언어영역 분야 - 9

문학 분야 - 3

